

경의선숲길에 걸려있는 작은 공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아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걸었다. 끈질긴 여름을 떨치고, 가을의 프롤로그를 느끼고 싶었다. 공덕동에서 걷기 시작해 서강대 가기 전 쯤이 되었다. 남매로 보이는 어린 아이 두 명이 나무에 걸린 공을 잡으려고 높이뛰기를 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공은 낮은 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지나가던 젊은 연인이 발을 올려 쉽게 내려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의 공은 더 높은 가지에 걸려 있어, 도저히 손을 뻗어 내릴 수 없는지 청년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 때 멀찍이 작은 벤치에서 인기척이 났다. 벤치에 앉아서 작은 공들의 서사를 모두 지켜보고 있던 외국인 노부부가 우산을 건네주었다. 다행히 키가 꽤 큰 청년이 그 우산을 받아서는 두 번째 공을 가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학습도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습도시는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학습도시로 전환하며,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와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지역 내에서 지식이 효과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네 가지 중요한 관계적 특성이 지식 공유를 촉진한다.

첫째,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 것, 둘째,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는 것,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 넷째, 관계의 안정성이 학습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이 네 가지 특성은 학습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학습도시는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습도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도시의 핵심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주민들 간의 관계가 부족하거나 지식과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학습도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민들 간의 지식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도시의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식 창출과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경의선숲길에서 우산을 건네받아 공을 내린 젊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의 도구와 지식을 공유할 때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위정자의 한 수가 된 금투세



기지 수첩

신 하 운
(자본시장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 같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혀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1.83% 오르고, 코스닥은 3.43% 급등하면서 불기둥을 세웠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

면서 국내 증시 하락에 힘을 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자산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제도다. 1400만 개미들의 성공 투자 희망을 꺾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2023년에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여야가 다시 대립하며 내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개미들의 자세저항이 커지자 정치권도 개미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여야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대변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4년여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줄다리기한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결정했으나, 다

시금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재유예’ 의견도 언급됐지만, 차기 지방선거·대선 등을 고려해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은 개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불안하던 국내 증시가 리스크 요인을 하나 걷어내고, 반등 기미를 모색할 수 있는 전제를 갖춰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두고 정쟁을 펼치는 모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경제규모에 맞춰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금융교육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기 위해서는 정략의 한 수로 ‘투자정책’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10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다. 48년생 운기가 어려울 때는 만남을 자제. 6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72년생 배가 부르면 물에서 수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84년생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37년생 다 늦은 투자는 뒤통수를 맞게 되니. 4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원숭이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니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다. 85년생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마라.



38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 50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온다. 62년생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는 수분수의(守分隨義)의 교훈. 74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다. 86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3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1년생 외의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라. 75년생 초년에 비교적 낮은 복록을 구가하면 말년에 평안하다는데. 8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니.



40년생 마음은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2년생 운명 전이는 거의 타의에 의해 전개되는 일이 많다. 64년생 세사의 재발가로 비운의 역사는 늘 있다. 76년생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이다. 88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41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친절과 비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77년생 구체적으로 하늘의 뜻은 언제나 공평하다. 89년생 경계할 대상이라도 정의를 대해야.



42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54년생 음주와 과식을 신경 쓰도록. 66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78년생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지혜의 영역을 확장하며 변화시킨다. 90년생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43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면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55년생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9년생 환경을 주관하는 것은 조물주의 뜻인 듯. 9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들다.



44년생 오늘의 부는 조상의 형설지공(螢雪之功)이다. 56년생 뜻밖의 횡재수에 감사하자. 68년생 자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소모시키지 말도록. 80년생 온도는 비슷하지만 춘기(春氣)와 추기(秋氣)는 분명 다르다. 92년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45년생 초조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57년생 신념이 강해도 소통은 해야 한다. 69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빛을 갠으로 온다. 81년생 머지않아 부자의 명으로 될 테니 불운해 하지 말자. 93년생 배우자가 자식 둘 마음도 없다.



46년생 하늘을 뒤집어 땅을 만드는 역량으로 운명을 역전. 58년생 상처 입은 날개를 치유해서 환골탈태를. 70년생 가난한 이의 한 끼는 생명과 관계. 82년생 운이 하강하면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하지 않는다. 94년생 새롭게 의지를 다져보자.



47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5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 71년생 현상 전이를 보면 지위가 높으면 자식이 없기도 하다. 83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 95년생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인 경우가 인생사에는 허다하다.



김상회의四季

친구 인연법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다.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 아니던가? 영화 대사 중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라는 말처럼 친구는 마음이 통하고 설사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이해를 해준다. 때로는 가족들보다 더한 끈끈한 우정과 의리의 인연이기도 하다. 친구와 비슷한 뜻으로 ‘동무(同務)’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동무라는 말은 정치적 사상이나 주의를 같이 추구하는 ‘동지(同志)’가 연상되어 친구만큼의 정감은 될 한 듯하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을 지음(知音)이라 하니 이름만 친구라면 지음은 아닐 것이다. 모쪼록 친구 사이의 우정에 있어 가장 유명한 고사 중의 하나는 중국 제나라 시절 관중과 포숙아 사이의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아닐까 싶다. 관중은 뛰어난 정치가로서 제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큰 인물이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관중은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을 때도 수익을 나눌 때면 자신이 더 많이 갖곤 했다. 하지만 포숙은 관중의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며 이를 이해했고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도 관중이 3번이나 도망을 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포숙은 관중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변호해주곤 했다. 후에 재상에 오른 관중은 “나를 낳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숙뿐이다”라며 “포숙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한데서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된다. 사주명리학적으로는 비견과 겁재가 혼재하면 친구 덕이 박하다. 좋을 때는 좋아도 운기가 어려울 때는 비견은 경쟁자가 되며 게다가 겁재까지 있게 되면 친구로 인해 뒤통수를 맞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대운이나 세운에 비견 겁재가 들어올 때도 강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1	2		4
7	3						9
				3			
		3		7			1
5		6				4	9
	7			5		6	
			1				
	9						8 7
3		7	5				6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6	8	7	9	2	1	8
2	8	1	9	8	2	9	6	7
9	7	8	2	6	1	2	9	8
8	2	9	7	9	8	6	2	1
6	2	7	2	1	8	9	8	9
8	1	9	6	2	9	8	7	2
1	9	2	8	6	7	2	9	
9	6	8	9	2	7	1	8	2
7	8	2	1	9	2	8	9	6

6	1	9	2	8	7	2	9	8
8	2	8	9	2	9	1	6	7
2	9	7	1	6	8	2	8	9
9	7	8	9	1	8	2	6	
9	2	8	9	6	8	7	1	
8	6	1	7	2	8	9	9	2
7	9	9	8	1	6	2	2	
1	8	2	6	9	2	7	8	9
2	8	6	2	7	9	1	8	